



국립광주과학관 인공지능관 전시관 내부모습.

“인공지능이 바꿀 미래 만나볼래?”

국립광주과학관 ‘인공지능관’ 개관... AI타워·체험콘텐츠 등 설치

국립광주과학관은 체험을 통해 인공지능의 개념과 인공지능이 바꿀 미래를 만나볼 수 있는 ‘인공지능관’을 개관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공지능관은 국립광주과학관 부지 내에 지상 2층, 연면적 1730.73㎡(전시면적 968.65㎡)의 규모로, 첨단과학기술이 결합된 콘텐츠 체험관의 상징적 이미지를 ‘윙’ 형태로 구현한 독특한 형태로 조성됐다.

1층 전시관은 ‘AI 타워’를 비롯해 과학과 예술을 인공지능과 접목한 체험콘텐츠와 인공지능 연구성과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품 12점이 설치됐다. 2층 전시관에서는 나만의 아바타를 통해 만나는 미래 인공지능 세상을 16점의 전시물을 통해 체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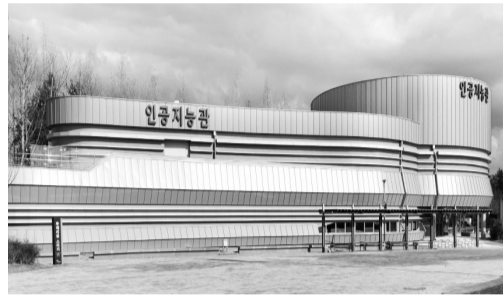
인공지능관 개관에 발맞춰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특화 교육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인공지능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올바른 답을 찾아내는 ‘머신러닝’을 초·중·고 수준별로 설계해 적용해볼 수 있는 교육을 준비 중이다.

인공지능관은 매일(월요일 휴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개관하며, 관람료는 24개월 이상~성인 2000원이고, 20인 이상 단체의 경우 1500원이다.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와 우대고객(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동반 보호자 1인은 무료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인공지능관 개관을 기념해 통합관람권을 발매한다. 통합관람권은 5000원으로 본관 상설전시관(3000원), 어린이과학관(2000원), 인공지능관(2000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관 개관을 기념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도 진행된다. 5월 주말 인공지능관 관람객 선착순 1500명에게 방문 기념품을 증정하며 6



인공지능관 전경

월 11일까지 인공지능관 입장 관람객을 대상으로 응모권 추첨 이벤트, SNS를 통해 인공지능관을 알리는 소문 내기 이벤트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인공지능관의 세부 전시주제와 주요 전시품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애플 스마트폰 부품 자체 생산 확대에도 디스플레이 韓 의존도 60% 이상 유지 전망

애플이 스마트폰 부품을 자체 생산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되었지만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는 국내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일정 부분 유지될 것이라는 공공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25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애플의 부품 내재화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은 시장에서 계속 우위를 차지하려는 전략으로 아이폰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자사 부품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맥북, 스마트폰 등 하드웨어 기업으로 출발한 애플은 자체 OS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분야 혁신을 끌어낸 데 이어 맥북용 M 시리즈 칩,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설계·개

발하면서 반도체에서도 독자 생태계를 구축 중이다.

보고서는 “애플의 반도체 자립은 인텔·퀄컴·브로드컴과 같은 팹리스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하고 TSMC 같은 파운드리 업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며 유망 팹리스 기업 성장 지원,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역량 강화 등 정책을 주문했다.

또 보고서는 아이폰에 사용되는 주요 반도체 부품 다수가 이미 미국에서 설계, 제작되고 있지만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 여파로 애플 칩이 미국에서 생산될 기회가 더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애플이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 매출 26%가량을 차지하는 가운데 칩 법으로 애플 납품 반도체 생산량 일부가 미국으로 배정될 것

로 전망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보고서는 애플이 자체 부품 사용을 확대하고 있지만 향후 수년간 디스플레이 패널 조달에 있어서는 삼성디스플레이를 비롯한 한국업체 의존도가 최소 60% 이상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이르면 내년 말 ‘애플워치 울트라’에 기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대신 자체 설계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애플워치 OLED 주 공급사인 LG디스플레이[034220]의 몰락 축소 리스크가 있지만, 마이크로LED 시장에서 새로운 활로 모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마이크로LED를 대량 생산을 하려면 대규모 투자비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향후 수년간 애플은 한국 업체로부터 디스플레이를 조달할 전망”이라며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가 애플의 마이크로LED 물량을 위탁 생산하게 된다면 중국 업체에 밀린 LCD 시장 열세를 만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소마젤란은하 젊은 별 수백개서 행성물질 포착

NASA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관측

미국 항공우주국(NASA)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JWST)이 우리에게 인접한 왜소은하인 소마젤란은하(SMC)에 있는 태양보다 작은 젊은 별들 주변에서 행성을 구성하는 물질들을 다수 포착했다.

영국 왕립천문대 천문기술센터 올리버 존스 박사는 25일 ‘네이처 천문학’ (Nature Astronomy)에서 JWST로 소마젤란은하에 있는 별 형성지역 ‘NGC 346’에서 태양보다 작고 젊은 별 수백개 주위를 행성 구성 원소들이 돌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지구 같은 행성은 별 주위를 돌던 먼지나 모래 같은 미세한 알갱이들이 서로 뭉쳐지면서 작은 미행성체가 되고 미행성체들이 서로 충돌해 합쳐져 행성 핵이 되는 과정을 거쳐 큰 행성으로 발전한다.

이런 과정이 일어나려면 별 주변에 수소·헬륨보다 무거운 규소, 마그네슘, 알루미늄, 철 같은 소위 ‘금속성’ 원소들이 풍부하게 있어야 한다. 하지만 소마젤란은하에는 이런 금속성 원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따뜻한 성간 먼지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을 감지할 수 있는 JWST의 근적외선카메라로 지구에서 19만9천 광년 떨어진 소마젤란은하 내 별 형성지역 ‘NGC 346’에 있는 태양보다 작고 질량이 작은 별들을 관측했다.

이를 통해 NGC 346 지역에 적외선을 방출하는 행성 구성 물질들에 둘러싸여 있는 태양보다 작고



‘소마젤란은하’

젊은 별(YSO) 500여개를 발견했다.

태양보다 작고 질량이 작은 별(YSO)은 우주에서 가장 흔하게 존재하는 천체로 알려져 있다. 이런 별 주변에서 행성을 만들 수 있는 원소들이 다수 발견된 것은 우주공간에 그만큼 행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팀은 소마젤란은하 내 YSO 주변에는 암석 구성 원소들은 우주 역사에서 소위 ‘우주의 정오’로 불리는 시기의 은하들과 비슷할 정도로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우주의 정오는 빅뱅 후 은하들이 빠르게 성장하던 ‘우주의 새벽’에 이어진 시기로 약 120억~110억년 전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 은하들이 수백 배 커지고 우주의 별과 블랙홀 대부분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日 민간기업 달 착륙선 26일 달 착륙 시도

성공하면 민간 최초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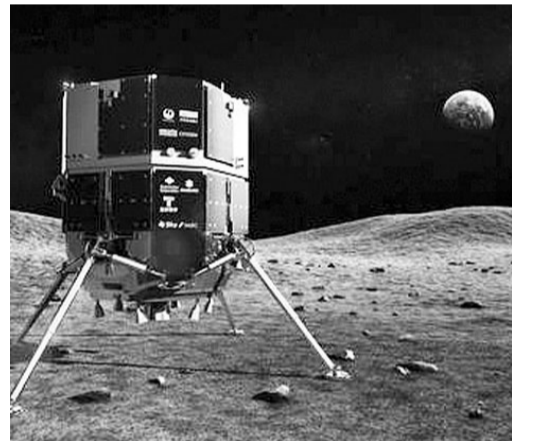
일본 우주기업 ‘아이스페이스’ (ispace)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달 착륙선이 26일 달 착륙을 시도한다고 일본 언론이 지난 23일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11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된 달 착륙선은 발사 약 4개월 만에 달 착륙에 도전한다. 성공하면 일본은 러시아, 미국, 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나라가 된다. 민간 기업의 첫 달 착륙으로 기록된다.

아이스페이스 달 착륙선의 크기는 높이 2.3m, 폭 2.6m다. 내부에는 아랍에미리트(UAE)의 10kg짜리 초소형 로버(탐사 로봇) ‘라시드’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가 장난감 업체 다카라 토미와 공동 개발한 공모양의 변형 로봇이 실렸다.

일본은 소행성 탐사선 하야부사1과 하야부사2가 소행성 착륙에 성공한 적은 있지만 달과 같은 중력이 있는 천체 착륙 경험은 없다. JAXA는 지난해 11월 미국 항공우주국(NASA) 아르테미스 I 미션의 우주발사시스템(SLS) 로켓에 초소형 탐사기 ‘오모테나시’를 실어 보냈으나, 통신 상태가 불안정해 달 착륙에 실패했다.

JAXA와 다카라 토미가 개발한 로봇은 달 표면에 관한 데이터를 얻을 계획이다. 또 이 프로젝트



일본 우주기업 ‘아이스페이스’의 달착륙선

에 참가한 일본특수도입은 과혹한 달 표면 환경에서 배터리와 그 재료의 동작 실험을 할 계획이다.

아이스페이스는 착륙 후 채취한 달 모래를 NASA에 판매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실현되면 달에서 상업적인 판매거래가 성립하는 첫 사례가 된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아이스페이스는 이번에 달 착륙 기술을 검증하고, 2024년에 달 표면을 주행하는 탐사차를 착륙선에 담아 보낼 예정이다. 이어 2025년에는 미국 연구기관과 함께 달 표면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서비스를 NASA에 제공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연합뉴스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